우리금융 인사 급물살… 광주은행장 누구?

송기진 행장 등 5~6명 후보거론
광은 노조 반대농성 막판 변수로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에 이팔성 현 회장의 연임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말로 예정된 광주은행장 선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오종남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장은 우리금융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임에 성공한 이팔성 회장은 앞으로 민영화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회장추천위원회가 이 회장의 연임 결정을 내린 것도 재임 기간 민영화 물고를 튼 이 회장이 민영화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회장의 연임이 확정됨에 따라 금융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휘 우리은행장과 송기진 광주은행장, 박영빈 경남은행장 직무대행의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은 차기 은행장 선임작업에도 깊숙이 관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회사 행장후보추천회위원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한 사외이사, 외부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이 회장의 입김이 강 할 수 밖에 없다.

차기 우리은행장은 우리금융의 윤상구·김정한 전무와 이순우 수석부행장, 이병재 우리파이낸셜 사장, 김희태 중국현지법인장이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광주은행장 후보로는 송기진 현 행장을 포함해 5~6명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권이나 정치권에서는 연임이 확정된 이 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송 행장이 지난해 실적과 지역밀착 경영등 원만하게 조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조심스럽게 연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송 행장은 우리은행(옛 상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신답게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광주은행이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연쇄 기업회생절차 신청이라는 악재속에서도 당기순이익을 1050억원을 올리는 등 지역 밀착경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임기만료인 송기진 은행장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연임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은행 노조가 15일 천막농성에 돌입함에 따라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광주은행과 노조 등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 광주은행지부 소속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관 로비에서 송 행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광주은행 노조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지켜보며 송행장의 연임이 철회 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광은 노조는 "송 행장의 재임기간동안 광주은행 민영화는 뒷전이었고, 분리매각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점, 인사와 복지, 조직문화 등은 후퇴했다" 며 송 행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재호기자 lion@

메이드 인 광주 '카스' 잘 팔리네

작년 128만 상자 전년比 25%↑…젊은층 선호

오비맥주가 광주에서 생산되는 대표 브랜드 '카스'를 앞세워 광주지역에서 지속적인 판매성장률을 거두고 있다.

15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카스판매량이 128만 상자를 기록, 전년(103만 상자) 대비 25% 상승했다.

특히 카스는 광주에서 지난 2007년 83만 상자를 판매 한 후 2008년 99만 상자, 2009년 103만 상자, 2010년 128만 상자 등 3년 연속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광주지역의 대표 맥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시노베이트 코리아'의 조사 결과 2010년 광주지역 '카스' 브랜드 선호도는 전년보다 4.1%P 상승한 12.3%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9.7%, 30대 11.4%로 각각 전년보다 7.7%P, 2.5%P 상승했으며 특히 20대의 선호도 증가폭이 5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아 젊은 소비자층의 카스를 많이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2월 기준 '카스'의 전국 브랜드 선호도는 39.2%로 2008년 하반기 이후 3년간 1위 자리를 지켰다.

오비맥주는 광주에서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억6500만원의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맥주보리를 전량 수매해 지역 농가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광주공장 야구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사회적 나눔에도 동참하고 있다.

오비맥주 호남권역장 이성우 상무는 "오비맥주가 지난해 광주시민의 사랑과 관심으로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돼 기쁘다"며 "광주지역에 공장을 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카프에 봄 향기 담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4일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 향기가 느껴지는 화사한 컬러의 스카프 신상품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올 봄 스카프 트렌드는 화사한 파스텔톤 컬러의 꽃모양 프린트, 에트로 무늬가 주를 이뤄 여심을 유혹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우리금융 이팔성 회장 연임 성공

"혹독한 시험 거쳤다… 민영화에 전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은 15일 연임에 성공한 소감을 담담한 어조로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닷컴 주최의 '녹색금융국제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연임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혹독한 시험을 거쳤는데 예상했겠느냐"고 반문한 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우리금융은 민영화 추진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일 뿐"이라면서도 "정부의 민영화 일정이 나오면 우리금융은 지난해처럼 투자자 모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화 방안으로는 블록세일이나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 등을 제시했다.

우리투자증권 분리 매각에 대해선 "세계적인 흐름은 투자은행(IB)보다는 CIB(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나 CB(상업은행)로 가는 분위기"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금조달도 용이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차기 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회장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인사가 와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조만간 구성될 자회사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연합뉴스

신세계 백화점-이마트 법인 5월 분리

주식 26%-74% 비율 분할

신세계(대표 정용진 부회장)가 5월1일자로 백화점 부문과 마트부문을 나눠 각각 ㈜신세계, ㈜이마트란 이름의 2개 회사로 분할된다.

신세계는 15일 경영이사회를 열어 백화점 사업부문을 기존의 '㈜신세계' 법인명으로 유지하고, 이마트 부문은 '㈜이마트'란 사명으로 법인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기업분할에 대한 최종 승인은 다음달 18일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고 분할기일은 5월1일로 결정할 예정이다.

존속 법인인 ㈜신세계의 발행주식은 6월10일께 변경 상장되며, 신설법인 ㈜이마트 주식은 유가증권 상장규정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재상장된다.

기업분할 비율은 자본금 기준으로 ㈜신세계가 26.1%, ㈜이마트가 73.9%이며,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동일한 비율로 분할 정리된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자본금은 ㈜신세계가 약 492억원, ㈜이마트는 1393억8000만원 수준이 된다.

신세계는 또 기존의 ㈜신세계가 투자한 계열사들은 사업연관성에 맞춰 두 회사에 귀속하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에는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첼시, 광주신세계, 신세계 의정부 역사가 귀속된다.

또 조선호텔과 신세계푸드, 신세계 아이앤씨, 신세계건설, 스타벅스코리아, 신세계L&B, 이마트 중국 현지법인(10개) 등은 ㈜이마트에 귀속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스키장 울고 한파 때문에… 홈쇼핑 웃고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38개 업종 910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 겨울 한파로 영업장이 야외인 스키장, 전통시장 등이 주로 손해를 봤지만 백화점, 정유업은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스키장·골프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의 91.4%, 놀이공원 87.5%, 렌터카 75.0%, 음식점의 67.3%가 손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유통업종 가운데 전통시장(86.4%), 편의점(85.7%), 대형마트(72.2%)는 한파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반면 백화점과 홈쇼핑은 매출이 오히려 늘었다는 응답이 50.0% 였다.

자동차(50.0%)와 오토바이·자전거(40.0%) 관련 제조업체는 추위 때문에 타격을 입었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정유업의 41.7%는 추위로 덕을 봤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 때문에 소비자가 외출을 자제하면서 이와 직결된 업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삼화저축은행 매각 본입찰
우리·신한·하나금융 참여

15일 마감한 삼화저축은행 매각 본입찰에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3곳이 모두 참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삼화저축은행 매각은 인수자가 직접 저축은행을 설립해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순자산부족분에 대해선 예보기금을 투입해 메워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3개 지주사들은 이날 자산·부채 인수 범위와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액 등을 써냈다. 예보는 이를 검토해 '최소 비용 원칙'에 맞는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